

## 장애인기능올림픽 유공자 초청 오찬 중 말씀

장애인 정책에 속도를 더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장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입상 때까지의 땀과 노력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감동 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에 비해 초청이 늦어 유감스럽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해드리지 못해 안쓰럽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난달을 돌이켜 챙겨보니 국민의 정부 기간 때 장애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갈수록 발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큰 배와 큰 차는 처음 출발할 때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지만 예열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빠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한국이 경제력이 세계 12위의 수준이 됐습니다. 장애인들과 그밖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여건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